

목포 철도 폐선부지공원 시민소통 각광

지역발전사업 최우수등급

연동광장~임성역 6.2km

연간 97만명 이용 인기

‘목포 철도 폐선부지 웰빙공원’이 최근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주관의 2015 지역발전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 등급을 받았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 특별회계 포괄보조 사업을 대상으로 14개 세부지표에 따라 상대 평가를 실시해 5등급(S, A, B, C, D)으로 나눠 평가했다.

목포시는 이번 평가에 ‘철도 폐선부지 웰빙공원’과 ‘특수상황지역(도시)개발’ 등 2개 사업을 응모, 각각 S등급과 A등급을 받았다. 전남 22개 시·군에서 S등급을 받은 곳은 목포시가 유일하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향후 행복생활권 사업 등 지역발전사업에 있어 국비 반영률을 상향해 줄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시는 호남선의 도심철도 이설로 발생한 연동광장~옥암동 임성역 앞에 이르는 총 연장 6.2km 폐선 부지를 활용해 지난 2007년부터 총 사업비 265억원(국비 100억, 시비 165억원)을 투입해 9년 만에 도내 최장(最長)인 도심 녹지 네트워크를 조성했다.

정호공원과 동목포 공원, 송림공원, 이로공원, 석현공원 등 5개 구간으로 나눠 조성된 이곳은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를 함께 조성해 연간 이용객이 97만명에 달할 만큼 호응을 받고 있다. 자전거를 타는 시



목포시 연동광장~옥암동 임성역간 철도 폐선부지(총 연장 6.2km)가 시민들에게 운동과 휴식을 제공하는 녹색공간으로 변신했다. ‘목포 철도 폐선부지 웰빙공원’에 조성된 산책로를 걷고 있는 시민들.

민들과 자연을 벗삼아 걷기를 원하는 시민 모두에게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특히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관동도로로 접근성이 뛰어나 출·퇴근과 등·하교 길로 활용도가 매우 높다. 게다가 웰빙운동 공간, 화웨이단지, 야외음악당, 분수, 쉼터 등이 조성돼 시민들에게 삶의 활력과 재충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목 폐선부지 공원은 수치상으로도 도내 최고 수준이다. 이들 5개 구간에 식재된 수목만 교육과 관목 등 총 13만9539주에 달해 도시 숲으로 손색이 없다.

인조구장, 배드민턴 구장, 다목적 광장 등 6개소를 비롯해 체육시설도 14곳에 86종의 다양한 운동기구가 설치돼 남녀노소 누구나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체육공

원으로 활용도도 높다.

박홍률 시장은 “폐선부지 공원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생활활력 증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며 “도심간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시민간 소통과 문화·예술창작 활동의 무대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용담댐 수질조작 원인은 ‘고용 불안’·‘무관심’

하수처리장 계약직 12명 입건

재계약 위해 총인수치 조작

허술한 근무 관리체계도 한몫

전북·충남 도민의 식수원을 오염시킨 용담댐 수질조작 사건의 원인이 고용불안과 허술한 관리체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지난 8일 용담댐 상류에 있는 수질 원격감시장치(TMS)를 임의로 조작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진안과 장수의 하수처리장 근무교대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당초 진안군과 장수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두 곳의 하수처리시설 직원들이 수질관리에 따른 약품처리 비용

을 빼돌리기 위해 TMS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수사 결과 전혀 예상 밖의 결론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 약품을 납품한 제약회사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약품과 관련한 비용이 너무 적고 라비트 정량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번 수질조작 사건은 하수처리장에서 일하는 계약직 근로자들의 고용불안과 수자원공사의 허술한 관리체계가 ‘남은 비극’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진안과 장수의 TMS를 관리하는 직원들은 모두 12명으로 이들 중 7명은 계약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수질기준 초과로 인해 과대료가 부과되면 재계약을 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부령양화를 막기 위해 중점적으로 관리하

는 종인(물속에 녹아 있는 인의 양)수치 등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하수처리장 관리직 직원들의 ‘무관심’도 식수원을 더럽힌 원인을 제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계약직 직원들이 TMS 조작했다는 것을 관리직 직원들이 몰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아마도 근무와 관련 지식이 부족한 직원들이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근무 관리 체계가 허술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용담댐 수질조작 사건은 지난 3월 진행된 정부 합동감사에서 진안 용담댐 상류의 환경기초시설 방류수가 단 한 번도 기준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것을 수상하여 진 감사반에 의해 밝혀졌다.

/*전주·부안=강철수기자 knews@

목포교육청 자녀 진로 상담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호응

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문현주)은 최근 목포 용호초등학교에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을 실시했다.

“자녀를 위한 진로지도! 무엇을 고민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교육에는 학부모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학부모교육은 자녀를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목표설정 방법과 실천의 힘을 길러 주는 부모의 역할을 제시해 학부모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목포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행복 목포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전남 김 생산 호황...전년대비 7% 증가

30만7000t 수확...해남 최다

품종 개량으로 생산량·릿수↑

전남도는 9일 “지난해 10월부터 생산된 2015년산 김은 초기 수온 상승과 꺾병 발생 등 작황이 부진했으나 주 생산 시기인 1월부터 여장 환경이 호전돼 고향, 해남 지역을 중심으로 30만7000t을 생산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28만7901t)보다 7% 늘어난 규모다. 해남이 9만t으로 김을 가장 많이 생산했고, 진도(7만t), 고흥(6만8000t)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여기에 물길 가격 상승으로 생산금액은 전년(2101억원)에 비해 15% 증가한 242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해남지역은 수퍼김으로 인해 생산량 및 생산 릿수가 늘면서 김 양식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도가 2015년산 김 생산이 끝남에 따라 어업인들이 시설물을 철거하고, 다가올 2016년산 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고소득 품종 개발 및 어업인 지도관리에 나섰다.

건강한 김 사상체 배양부터 업체 관리를 철저히 하고 김 생산의 수급 및 가격 안정 등에 중점을 뒀고 고소득 품종을 개발, 보급할 방침이다.

또 규조류 등 이물질 제거를 위해 친환경적인 전해수처리기 55대를 보급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유해물질 사용 근절에 힘쓰기로 했다.

박상욱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어업인 스스로가 불법 양식을 근절하고 국민 먹거리인 김을 안전하게 생산해야 한다”며 “특히 김 수출국을 다변화하고 수출량을 확대해나간다면 앞으로 김 산업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동학혁명기념재단 오늘 서울서 심포지엄

세계기록유산 등재 방안 논의

8월 문화재청에 신청 계획

‘동학농민혁명 정기 심포지엄’이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라는 주제로 10일 오후 1시 서울 용산 한 글박물관 강당에서 개최된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김대관)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가 후원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이론적 토대와 실질적 방안 등이 다양하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서의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평가와 정의(김양식 충북발전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대상과 자료현황(왕현중 연세대 교수) ▲5·18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고찰(안종철 전 광주민주화운동 기록유산등재 추진단장)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전략(이병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등 연구논문이 발표된다.

기념재단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의 내용을 기반으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추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신청내용을 의결해 8월 말까지 문화재청에 세계기록유산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용=박기섭기자 parkks@

군산시 토지·지적 정보역량강화 연찬회 최우수상

군산시가 지난 5일 부안 모항 해나루 호텔에서 열린 ‘2015 토지·지적공간정보 역량강화 연찬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유상준 지적계장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구도심의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공유토지 분할처리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과제 발표를 통해 사업 시행과 정에서 노출된 공유토지의 지적재조사 해결방안을 제시해 호평을 받았다. 최우수상을 받은 군산시 발표과제는

오는 9월 국토교통부에서 열리는 ‘2015년 스마트 국토엑스포’에 제출된다.

앞서 군산시는 토지·지적업무 분야에서 2014 토지정보업무 최우수 기관상과 지적재조사 국토교통부장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연찬회는 전북 도내 14개 시·군 지적직 공무원들의 지적제도 연구공토 조성과 정보교류를 통한 지적행정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군산=박규명기자·전북취재본부장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매·교환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감정가이하

- 라스트로 7파출, 산수오거리에서 20분, 광주에서 5분거리 영업 빌딩 대지(1054㎡(319), 건물473㎡(143), 은행 2억3천만 원, 교도도가능 5억7천
- 금남로 4가 병합·사육 등 복합 5층건물 대지648㎡(196), 건물3410㎡(1032), 감정 23억 7800만원 매도 21억7천
- 영암군 월출산 관광시설지구 대지 1026㎡(310) 건물 2086㎡(630) 민박·식당·매점 등의 시설 은행 8억5천만 원, 매도가격은 협의함, 전화요양
- 금남로4가 대련면 대지 317㎡(97) 건물 1235㎡(363) 은행 4억 3천 원 매도 9천에 월 4600에 임대 중 공실 있음 14억
- 대안동 사육 등 복합건물 대지 780㎡(236) 건물 1993㎡(603) 감정가 24억 7천 매도 20억 6천2천만원
- 대안동 7층건물 대지 332㎡(100) 건물 1340㎡(423) 은행 4억 주택가주거하며 임대생활에 적합 9억 5천
- 신안동 모텔 대지 364㎡(110) 건물 885㎡(268) 객실 28실 은행 7억 교환도 가능함 매도 9억 5천

투자·매도·교환

- 조산대 일 대련면 동명동 5층 건물 대지 318㎡(96) 건물 736㎡(228) 상가도 인질, 월봉 18개 보증금 1억에 월 5000수익 8억7천
- 안동 1층 주거지 1317㎡(398) 대지·빌딩·복합 은행 2억 7천 매도 6억 2천
- 광장·최고적합 담양군 청평면 청평시장에서 7분거리 국도입 3426㎡(1036) 은행 1억 5천, 매도 3억 5천
- 나주시 중앙동 대지 331㎡(100), 건물 975㎡(234) 주인이 거주하며 보증금 2억 2천, 월 590, 은행 6억, 매도 13억 5천
- 광산구 신촌동 1층 주거지 3491㎡(1056) 소형APT적합 평면 150만원
- 광장·최고적합 나주시 다도면 학신도시 인근 이산 13968㎡(4225) 은행 3억 차용물건과 교환가능 5억
- 광산구 소촌동 3층 주거지 4161㎡(1259) 소형APT등 적합 투자에도 양호 15억 7천
- 신가동 국립공원 부근 노 2000㎡(605) 2억 6천
- 송정동 2층 주거지 1863㎡(560) 대단지 등 적합 12억 6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전원주택

- ▶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대지 및 전 2,305㎡, 주택 2층 각종 유실수 회초 식재됨, 전망 양호, 매3억8천
- ▶ 나주시 용산동 대지 및 전 5,100㎡ 황토 주택 3층 교통편리, 매7억
- ▶ 나주시 봉황면 죽곡리 면사무소 앞 한옥 기와 주택 및 점포 대지 315㎡, 임야 2,187㎡, 주택 96㎡, 공장 75㎡, 점포 26㎡, 매2억4천

농지 / 임야

- ▶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전 및 대지 7,930㎡ 신축주택 4차선 국도 및 2차선 도로면, 매12억
- ▶ 나주시 금천면 광암리 전 배 과수원 6,089㎡ 생산관리 지역 투자유망 매 7억
- ▶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담 2,975㎡, 2차선 도로면, 매1억 3천만
- ▶ 나주시 금천면 춘곡리 담9,341㎡ 혁신도시인근, 투자유망 매2억7천만
- ▶ 나주시 관정동 매립지 전7,547㎡ 2차선도로면 매3억2천만
- ▶ 나주시 금천면 신기리 전 2,820㎡ 2차선도로면 광주시 대촌동경계 매1억7천만
- ▶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담 13,530㎡ 면 소재지 매3억원
- ▶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배 과수원3,871㎡ 주택, 최고적합, 도로양호 매9천5백만
- ▶ 나주시 세지면 송채리 담7,610㎡ 2차선 국도면 도로면, 투자유망매1억5천만
- ▶ 나주시 남평읍 광촌리 임야1,384,140㎡ (대지,농지포함) 소나무양호, 수련원, 선산 적함 매30억원
- ▶ 영암군 금정면 월평리 (전) 배 과수원24,884㎡ 매4억8천만
- ▶ 영암군 금정면 청룡리 임야 91,446㎡ 도로양호, 투자유망 매3억3천만
- ▶ 나주시 금천면 춘곡리 전(임부대지) 배 과수원4,914㎡ 4차선 국도면, 자연녹지, 판매직 적합 투자 유망 매12억5천만

나주시 산포면 산포로 451
이준상 ☎ 010 9510 1150

정남진 별장

꼭, 별장이 필요하신 분은!!!

접근성, 주변환경, 천혜의 경관이 어울린 고급 수일 원목을 활용한 건축물로 완벽한 보안 시스템에 남해안 최고의 별장!

광주에서 39분 거리에 소재한 정남진 별장은 위의 조건을 완벽히 갖춘 곳!

토지 4,900㎡
건물 245㎡
매가 협의

독량만 해변가 환상적인 드라이브코스에 해수욕장과, 선착장에 바다낚시, 리조트 등 최고의 워낙시설이 어울린 명소의 정남진 별장을 선택하십시오!

토지매매

주소 : 서구 세하동(서광주역 뒤)
지역 : 주거지역 및 자연녹지(그린벨트)
지목 : 전 및 대
면적 : 7,439㎡(주거-1,112㎡, 녹지-6,327㎡)
매가 : 8억 5천

투자 & 전원주택 및 농장부지 최적

행운(구.대창)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송창석
011-642-7777

법원경매

화순군 춘양면 담1,050㎡
전원주택건축가능 최저가8백만원

담양군 수북면 대지258㎡
전원주택건축가능 최저가2천2백

서구 화정동 준주거지역 도로전 대지499㎡ 건물913㎡ 1층~4층, 벤츠광주전시장 뒤면, 주차대수 10대, 음식점추천, 건물상태좋은 감정가 12억 최저가 8억4천

서구 금호동 거북빌딩7층 대지181㎡ 건물295㎡ 전망최고 패밀리로스테도 및 외식업체추천 감정가 6억5천5백만원 최저가 2억3천5백만원

부동산 재테크 전문

동구 대안동 중심사업지역 8차선대로면 대지780㎡ 건물1,992㎡ 지하1층~지상4층, 프랜차이즈매장가,사육병원,NPL거래가능 감정가 25억 최저가 14억 투자적합

광산구 신가동 빛고을가구백화점 인근 주유소, 8차선대로면 대지1,422㎡ 건물599㎡, 투자 수익률 최고, 위치좋은,NPL거래가능 감정가15억7천 최저가 11억 투자적합

다외옥션 김응희부장
010-7147-4989

(주)전국부동산 경매연구소

법인등록번호 200111-018150
법인사업자번호 650-81-00051
무료 상담

“경제 취해 자금 및 후순위 담보대출 필요하신 분 상담”

본인이 직접 법원경매 입찰에 참여해서 (아파트, 주택, 근린 상가, 점포·주택, 다가구/원룸 숙박시설, 공장, 토지) 취득 후 매매와 임대하여 안정적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께 상담 합니다. (정년·명예퇴직 하신 분 환영)

사업의 종류

- 부동산 중개업(매매/임대)
- 경·공매 권리분석 취득 알선업
- 경·공매 부동산 명도 용역업
- 주택 건설업
- 경락자금 알선업

보유자격증

- 공인중개사, 경매사, 행정사
- 토목기사

방문 및 상담
062-449-2552
010-3441-1308 (주/야)
수익금 일부는 생령사랑운동본부에 후원합니다.

상업지역 급매

소액투자 최적합지

호텔 모텔 무인텔

즉시 건축 가능 건축허가 완료!

면적
330㎡ / 660㎡ / 1,320㎡
3.3㎡당 180만원

주인직
010-5450-1172